

최근 마산에서 발생한 가정폭력피해자의 가해자 살해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져 관심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반응은 당연하다는 의견과 살인사건인데 너무 관대하다는 의견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마산의 가정폭력피해자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2시간 넘게 무자비한 폭력을 당하고 남편이 잠들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남편의 목을 졸랐고 자수했다. 당시 그 피해자는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부어있었고 두개골과 갈비뼈엔 골절상을 입어 자수한 후 병원치료를 받아야할 정도로 폭행을 당한 상태였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강릉여중생의 아버지 치사사건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러한 판결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정한 판결이란 점에서 여성계에 환영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비슷한 사건들 가운데 가정폭력의 상황과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정당방위를 인정 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최근에서야 가정폭력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하는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이미지도 정상 참작으로 양형에 참고할 뿐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결을 내린 적은 없다.

가정폭력과 연관된 가족원의 살해 행위는 가



불자 세상보기

신연숙 한국여성성의전화연합 가정폭력추방팀장

가정폭력의 피해자

정폭력의 가해자에 의한 살해와 가정폭력 피해자인 부인과 자녀에 의한 가해자 살해 행위로 나뉘는데 이에 대한 처리과정은 현저히 다르다. 가정폭력의 연장에서 이루어지는 살인과 살해행위는 보통의 경우 폭행치사 등으로 처벌되며 심지어 기소유예로 처리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두 번째의 경우는 거의 살인으로 예외 없이 중형으로 처벌을 받아왔고 그 사건의 원인이 된 가정폭력이 경시되고 심지어 사죄의 비난을 받게 되기도 하여 처벌의 형평성에 많은 문제를 드러내왔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살해 행위 중 장기간의 폭력상황 노출과 며칠간 혹은 사건당 일에도 강력한 폭력과 협박을 당하던 피해자가 잠을 자는 가해자를 죽이는 경우는 폭력의 현재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 관점'에서는 가해자의 공격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장기간 구타당해온 피해자의 입장에서 살인 당시 자신이 죽을 또는 심각한 신체상해에 직면해 있다는 인식이 합리적일 수 있음을 인정하여 정당방위에 대한 법리의 변화가 필요하다.

폭력의 현재성, 방어의 상당성이 있어야만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것은 여성폭력 피해여성에게 맞다가 죽으라는 말과 다를 바 아니다.

많은 경우 가정폭력피해자는 폭력 후 잠든 남편을 죽이게 된다. 그러나 몇 시간 동안 계속 때리다가 잠이든 남편이나 아버지는 잠이 깨면 또 때리는 상황이 올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므로 잠깐 쉬는 것이지 폭력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피해여성에게는 잠이든 남편을 죽이는 것에 대해 폭력의 현재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도 회망적인 것은 재판부에서 최근 가정폭력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인정하고 형량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는 그동안 가정폭력 피해자의 가해자 살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여성의 전화'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형법 개정논의를 통해 남성중심적인 정당방위 규정(이는 남성과 남성간의 힘의 균형이 대등한 관계에서의 폭력만을 범주에 넣고 있을 뿐이다) 바꾸어 남과 동시에 법의 적용에 있어서 여성주의적 관점의 재해석과 이를 통한 사법체계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더욱 활발하고 끈질긴 활동이 필요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불자의 눈

한국 가톨릭의 본산인 명동 성당 교스트롤에서 불교전통의 식인 영산제가 4월 19일 열렸다. 지난 해 조계사 청년회는 유교, 기독교, 이슬람 성직자들을 초청해 강연회를 가졌다. 이웃 종교를 이해하고 화합을 모색하는 자리다. 가히 혁명적 발상의 산물이다. 그런 걸 보면서 아득한 옛 기억이 떠오른다.

빵 신자의 추억이 서린 곳, 논산훈련소다. 일요일 아침이면 대다수 훈련병들은 독실한 불교 신자, 기독교 신자가 된다. 대열을 이루어 군중병의 인술 하에 군가를 부르며 씩씩하게 법당으로, 교회로 간다.

신자에게는 특권이 있다. 노에 사냥하듯 마구잡이로 끌려가야 하는 사역으로부터 해방이다. 그리고 법당에서,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푸짐한 빵을 받아 안심하고 꾸역꾸역 먹는다.

빵 신자의 면면은 수시로 바뀐다. 맛있는 빵을 넉넉하게 주는 쪽으로 몰린다. 부처의 자비와 예수의 사랑은 오직 빵에 달려있다. 그래서 누구 하나 탓하지 않는다. 지난 주에 법당에

명동성당에서 펼쳐진 영산제

서 수계 받은 놈이 이번 주에는 세례 받는다고 교회에 앉아 있다. 성직자도 동료들도 비난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 짙박한 처지에 놓인 훈련병일 뿐이다.

종교간 평화 없이 세계 평화는 없다. 종교적 갈등이 정치, 사회, 경제적 갈등으로 전이된다. 타종교란 용어가 이웃 종교로 바뀌는데 100년 이상 걸렸다. 이웃 종교에 대한 이해의 부재,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지 않고 틀린 것으로 간주하는 오류, 종교적 다양성 인식의 부재가 가장 큰 이유다.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종교요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종교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서 한다. 일을 펼치고 저지르는 것이 정치라면, 종교는 수습하고 정리하는 것이 사명이다. 정치에 휘둘리거나 정치적 야심을 종교를 통해 구현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 반쯤 얼어 빠져 있는 훈련병에게 제공한 약간의 위안과 빵 한 조각, 종교의 사명은 그것으로 족하다. 그들에게 빵을 건넨 손이 누구의 손인가는 묻지 마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 손이 모르게 하라. 보시 가운데 으뜸은 무주상보시라. 가르침이 같으니 다름 일이 무어 있오라.

■ 이우상(소설가)

열린마당

지난주(제573호) 현대불교신문의 1면 머릿기사였던 '교회가가 친구들과...'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불교계 청소년 포교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많은 이들의 우려와 반성의 계기가 되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조계종의 포교담당 국장, 지역사찰의 스님, 불교계 유일의 파라미터 청소년협회 관계자, 일선 중학교 교사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이들이 생각하는 청소년 포교 활성화의 대안은 무엇인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스포츠 등 다양한 포교방법 찾자

우리는 지금 청소년 포교를 열심히 해 성공적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는 곳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평 상원사에서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호산 스님은 사찰에서만 펼쳐졌던 청소년과의 만남들을 탈피해 현장 속으로 직접 뛰어들었다. 스님은 흥천 대명 스키장에서 4년째 탐마배 주니어 시합을 개최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 관음사 포교국장 비구니 스님은 롤러스케이팅을 사찰에 비치해 놓고 청소년들과 함께 움직이며 불교를 가르치고 있다. 스님은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포교 현장을 만들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 외에도 구미 진오 스님의 마라톤, 법륜사 보경 스님의 축구교실, 대구 관음사 우학 스님의 야구단 창설 등등 처지에서 스포츠를 통한 포교 전략이 서서히 자리매김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처럼 스포츠 등 청소년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포교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종적으로 발전시켜야 나갈 필요가 있다. 또 스포츠뿐만 아니라 인터넷, 예술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포교전략이 필요한 때다.

재현(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성지순례 등 가족과 함께 진행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다.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대해 필요성을 얘기하면서도 실질적인 방법론이나 대안이 부족한 게 불교계 현실이다.

사찰 구조상 아이들의 구미에 딱 맞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도 몇몇 사찰이나 포교당을 제외하고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또 내 자식에게 이렇게 하라는 강요는 오히려 사춘기의 청소년에게는 부작용만 더해갈 것이다. 이러한 패시브 접근과 충분히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포교에 있어 제1선은 내 주변이다. 부처님께

서도 깨달으신 후 5비구에게 첫 설법을 하신 후 당신의 고향인 카필라성을 향해 전법의 길을 나선다. 내 가족에 대해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 불자들이 취약한 부분 중의 하나가 자신 혼자만의 수행생활에 그친다는 것이다.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생활 속의 불교, 함께 공부하는 불교가 되어야 한다. 식탁에 오펜개를 적어놓고 식사 때마다 함께 기도를 한다든지, 주말에 가족이 함께 사찰순례 여행을 다니고 템플스테이에도 참가하다보면 아이들에게 여행의 기쁨과 자연이 주는 마음의 여유를 줄 수 있으며 그 자취는 아이의 가슴속에 크게 자리 잡을 것이다.

각우(보은 법주사 포교국장)

사찰에서 먼저 '놀이' 활용해야

사찰에서의 어린이 청소년법회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어린이 청소년포교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갈수록 더해가는 일시의 치열함으로 우리의 청소년들이 자유로운 여가생활과 종교활동을 누릴 수 없는 현실이

다. 게다가 컴퓨터게임과 인터넷만 청소년들의 관심을 대체할 만한 것이 없다.

하지만 주5일근무제와 주5일 수업제의 도입으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두 제도의 도입으로 가족단위의 여가활동과 체험활동이 확대될 것이다. 주5일 수업제로 사찰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확대될 거라는 사실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사찰을 찾아 체험활동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포교와 연결될 수 있다. 도심지 사찰에서는 지역 학교와 연계해 사찰을 활용한 토요휴무제(놀이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종단에서는 놀토 프로그램을 대상별(청소년, 가족), 기간별(당일, 합숙형), 내용별로 다양하게 개발하고 지도자 교육과 연수를 통해 보급해야 한다.

조한근 (사)파라미터청소년회 사무과장

불교 장점 개발해 청소년에 다가가자

많은 사찰에서의 청소년 포교가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 숫자가 많다고 해서 포교가 잘 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물론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사교의 장이 되기 때문에 나가는 이유도 있다.

학생들의 행동방식이 달라진 것이다. 지금 당장에 보이는 숫자가 많다고 해서 모두 불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방학 때 한번 느껴본 템플스테이 사찰에서 경험한 참나 찾기가 수련회가 아이들의 인상에 깊어 불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만의 우리 불교가 지닌 장점을 개발하여 청소년에게 다가갈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작은 관심으로 찾아본다면 우리의 청소년을 감동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윤경 (동대부중 교범사)

종교편향 언행 정치인에 '불심'은 써들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독자여론조사(조사기간: 3.23~4.13, 총 참여자 70명)

공직자들의 잇따른 공식석상 종교편향 발언이 불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전력을 가진 인물이 대선 또는 지자체 선거에 출마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표명한 것이므로 무방하다	1명 (1%)
② 문제는 있지만 내가 선호하는 정당의 후보거나 능력 있는 인물이라면 지지하겠다	3명 (4%)
③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절대 지지하지 않겠다	48명 (69%)
④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므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	18명 (26%)

고불총림 백양사 대응전 삼존불 점안 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병술년 새봄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흥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불총림 백양사는 1천4백여년전 백제 무왕때 창건하여 각진국사를 비롯한 만암, 서용래종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불교를 대표하는 많은 고승대덕을 배출한 유서깊은 도량입니다.

그간 사부대중의 지극한 정성과 동참에 힘입어 삼존불 조성불사가 원만히 마무리 되어 점안의식 및 회향법회를 아래의 일정으로 봉행하오니 수회 동참하시어 무량한 복과 지혜를 닦아 생사해탈의 법익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대응전 삼존불 점안 대 법회

일시 : 불기2550년(2006년) 4월 20일(목) 10시

식순 : 1부 - 점안의식 및 회향법회, 2부 - 축하공연

내년 백양사 대응전 삼존불 봉안식을 위해 삼존불 봉안을 성스럽게 장엄하는 불사에 불자님들의 수회동참을 바랍니다.



문의 : 061-392-7502(종무소)
접수처 : 종무소, 대응전법당
(입금계좌안내 : 농협 645117-51-018856)



대한불교 조계종
古佛叢林白雲寺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번지
Tel : 061-392-7502